

한국 구조대 생존자 2명 추가 구조... 총 8명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3만명 육박

5시간 넘는 사투 끝에 구조 성공
아들 의식 없고 어머니 건강 양호
유엔 “사망자 2배 이상 늘어날 듯”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긴급구조대가 11일(현지시간) 오후 모자 관계인 생존자 2명을 추가로 구조하면서 총 8명을 구조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탐색·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긴급구조대가 11일 오후 7시 18분, 8시 18분에 속령지로부터 북동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 생존자 1명씩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12일 밝혔다.

생존자들은 17세 아들과 51세 어머니로 같은 건물에서 구조됐다. 아들은 구조 당시 허반신이 잔해에 깔려 의식이 없었고 간신히 호흡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군 의료진의 응급 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후송됐다. 어머니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지난 6일 새벽 4시 17분께 지진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약 72시간으로 알려진 생존자 골든 타임을 훌쩍 뛰어넘어 구조된 것이다.

이날 한국 긴급구조대는 5시간에 걸쳐 착암기 등 구조 장비를 활용해 구조 대상자에 최단 접근로를 확보한 뒤 음향탐지기 등 정밀장비를 활용해 생존자에게 접근, 구조에 성공했다. 한국 긴급구조대는 이날 낮에도 속령지로부터 북북동쪽으로 1.7km 떨어진 곳에서 65세 여성을 구조했으며 이 여성과 함께 매몰돼 있던 남편도 수습했다. 남편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교부는 말했다.

이로써 한국 긴급구조대는 지난 9일 구조활동을 시작한 이래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으며 시신 18구를 수습했다.

이와 함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의 사망자가 2만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유엔의 관측이 제기됐다고 12일(현지시간) AFP·AP 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튀르키예 당국과 시리아 인권단체 등의 집계 따르면 지진 발생 96시간이 지난 양국의 지진 사망자는 2만8000명을 넘었다.

튀르키예 사망자가 2만4617명이고, 시리아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3574명으로 합치면 2만8191명에 이른다. 실종자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조 담당 사무차장은 사망자가 수만 명 더 나와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약 8만 명이 지진으로 부상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100만 명이 임시 대피소에 있다고 밝혔다.

구조품 등 국제사회의 원조가 피해지역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폐허로 변한 거리 여기저기에는 시신을 담은 가방이 줄지어 널려있고, 터전을 잃은 생존자들은 시신이 부패하며 나오는 악취를 막으려 마스크를 쓴 채 추위, 배고픔과 싸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많은 데다 수도나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모두 파괴돼 생존자들은 질병이라는 또 다른 위협에도 노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약탈행위마저 기승을 부려 생존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타이 등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약탈범들이 수십 명이 체포됐고 안전 문제로 구조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긴급구조대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서 51세 여성 생존자 1명을 구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긴급구조대 제공>

광주 민간단체 ‘아시아희망나무’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단 파견

현장서 이재민 구호·응급의료 지원

광주지역 민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사)아시아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가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단을 파견한다. 또한,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모금 캠페인도 벌인다.

12일 (사)아시아희망나무에 따르면 서정성 이사장(안과 전문의)을 단장으로, 김호중 아시아희망나무 이사(순천향대학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간호 인력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단이 13일 튀르키예로 출국한다. 긴급 구호단은 튀르키예 아다

나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텐트와 담요 등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고,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 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아시아희망나무는 또 현장에서 필요한 긴급 구호품과 이재민을 위한 모금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순천향대학 부천병원과 조선대병원, 아이안과 등은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파스, 드레싱키트 등의 약품과 함께 후원금을 희망나무측에 기탁했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현장에서 긴급 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진 파견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남구가족센터, 수완바른안과,

(사)아시아희망나무 이사회와 회원들의 모금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금은 현지 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개인·단체·법인 등은 (사)아시아희망나무 계좌 송금을 통해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구호활동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긴급 구호단장을 맡은 서정성 이사장은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을 이룬 위대한 시민들이다”면서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지만 광주공동체를 통해 튀르키예가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세계와 하나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권열 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시장 “군 공항 이전부지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해야”

100만㎡ 시·도지사에 해제 권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해 요청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100만㎡(30만평)까지 정부 허가 없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반도체산업단지 등 국가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에 군 공항 이전 부지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주시 전북도청에

서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 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하고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2016년에 30만㎡까지 정해졌던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를 3배 이상인 100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단지 등 국가 전략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진행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협력 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 공항 이전 부지라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광역계획권별 총량과 정부의 국책사업 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 공항이 옮겨가고 이 일대를 해제하면 광주 내 해제 가능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신규 산단 조성 등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온실가스 감축 아파트 선발...총상금 2억2000만원

3~10월 전기·도시가스 등 감량

광주시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양’을 선발한다.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광주 온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사업’ 참여 아파트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100가구 이상 규모로 공모에 신청한 아파트 중 100곳을 선정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과 음식물 쓰레기 감축 성과를 평가한다.

대상 4곳에 2000만원씩, 우수상 8곳에 1000만원씩, 장려상 8곳에 500만원씩, 노력상 28곳에 100만원씩 등 모두 48곳에 2억 2800만원 상금을

준다. 수상하는 아파트는 인증 현판과 함께 광주은행에서 아파트 명의 정기예금 가입 시 우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평가 대상 아파트는 3~10월 전기, 도시가스, 수도, 음식물 쓰레기 등을 감량하고 주민 참여 교육,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을 시행해야 한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광주시가 2045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23%를 차지하는 가정 내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 땅,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 ▲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고합21 (2017고합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
• 피고인 : 한은삼
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3년 2월 1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조현호

71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 525-3761	• 신안 222-9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8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충정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봉선 673-6836	• 송호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현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온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